DS INVESTMENT & SECURITIES

Sector Comment

[조선]
LNG선 발주량과 선가 모두 오를 일만 남았다.

김대성 조선 02-709-2665 / rlarla6019@ds-sec.co.kr

2026.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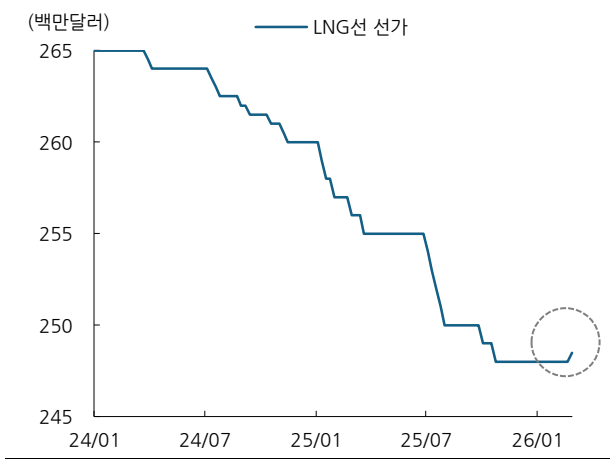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카타르산 LNG 수출 중단은 국내 조선사에겐 기회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전 세계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플랜트가 가동을 중단했다. 중동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가는 유럽과 아시아의 수입처(카타르산 LNG 수출량의 80%가 아시아, 15%가 유럽)를 미국으로 돌려 현재 FEED 단계인 미국 프로젝트의 계약 및 FID 물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미 벤처글로벌과 셰니에 에너지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설비의 추가 생산을 모색하는 등 그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카타르의 노스필드 웨스트 확장이 지연될 가능성도 생겼지만 중국 조선소가 중국 조선소의 수주가 주로 자국 및 중동 물량에 치중된 반면 국내 조선소는 미국 프로젝트 선박 발주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조선소에겐 기회라고 판단한다.

2026년 FID가 기대되는 LNG 프로젝트 물량만 81.0 MTPA, 선박 쇼티지는 지속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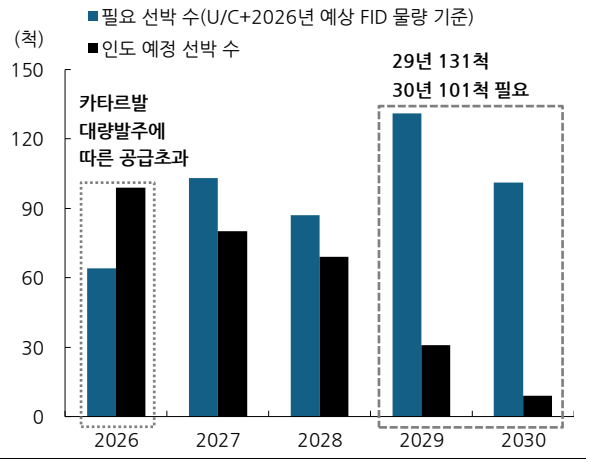
최근 업데이트된 LNG 프로젝트의 SPA 물량과 규제 충족 여부를 기반의 2026년 FID 예상 물량은 81.0MTPA로 이에 따른 신조 수요는 인도 기준 2029년 131척, 2030년 101척에 달한다. 현재 국내 조선소의 2029년 잔여 도크는 60~65척인 반면 미국발 프로젝트의 2029년 필요 척수만 80~85척으로 이미 공급자 우위 시장에 있다. 알래스카LNG 물량 및 중동 물량 전환분을 고려 시 추가 업사이드도 열려있다. 마침 2월 27일 클락슨 선가도 248.5백만 달러로 2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국내 조선사의 경우 실제 수주 선가가 252~255백만달러로 2026년 내 260백만달러 돌파도 가시권이라고 판단한다. 선가와 발주량의 동반 상승이 기대됨에 따라 조선업종 매수를 유지한다.

그림1 LNG선 선가 추이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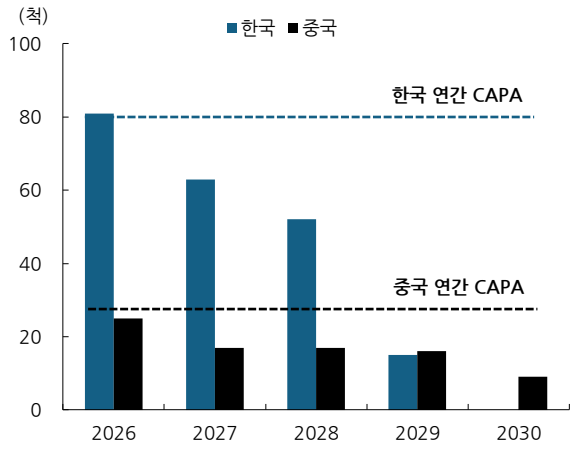
그림2 연도별 LNG선 필요 선박 수 및 글로벌 수주 잔고 현황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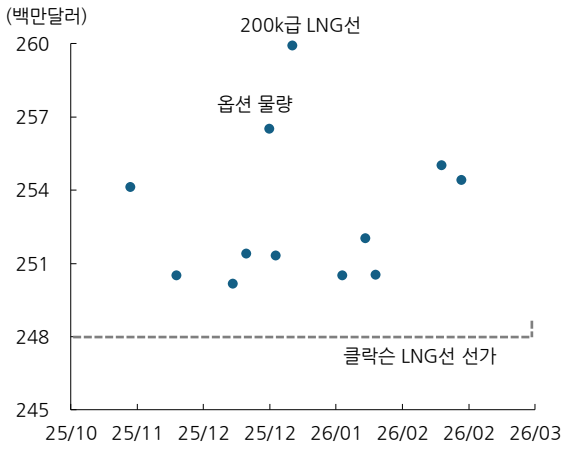
주1: FEED 이하 프로젝트는 2026년 FID가 기대되는 물량만을 반영

그림3 한국 및 중국 연도별 수주잔고 현황(인도 기준)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국내 조선사의 LNG선 수주 선가는 252~255백만달러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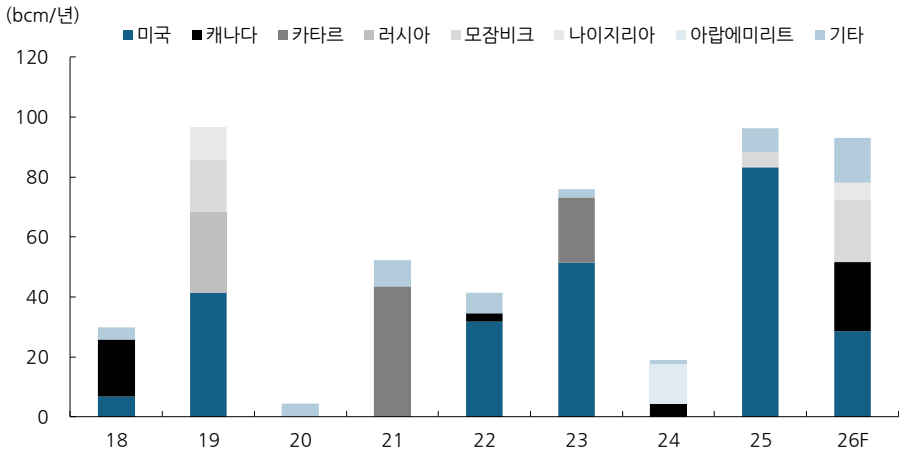
표1 주요 LNG 프로젝트별 계약 물량 현황

프로젝트명	국적	가동예정시기	최대 용량(MPTA)	계약 용량(MPTA)	계약율(%)	진행 단계	예상 FID 시점
Ksi Lisims (FLNG 1)	캐나다	2029	6.0	4.0	67	FEED	2026
Amigo LNG Train 2	멕시코	2029	3.6	3.6	100	FEED	2026
Yoho (FLNG)	나이지리아	2029	2.1	2.1	100	FEED	2026
Papua LNG	PNG	2029	5.6	3.2	57	FEED	2026
Texas LNG	미국	2029	4.0	4.0	100	FEED	2026
Abadi LNG	인도네시아	2032	9.5	-	-	FEED	2027
Rovuma LNG	모잠비크	2030	18.0	18.0	100	FEED	2026
Qalhat LNG Train 4	오만	2030	3.8	-	-	FEED	2026
Magnolia LNG Trains 1-4	미국	2031	8.8	-	-	FEED	2028
Sabine Pass LNG Train 7	미국	2030	7.0	7.0	100	FEED	2026
LNG Canada Phase 2	캐나다	2031	14.0	14.0	100	FEED	2026
Gulf LNG Phase 1	미국	2031	5.0	-	-	FEED	2028
Port Fourchon LNG Phase 1	미국	2031	10.0	-	-	FEED	2027
Freeport LNG Train 4	미국	2032	5.5	-	-	FEED	2027
Gulf LNG Phase 2	미국	2032	5.0	-	-	FEED	2028
Monkey Island LNG Phase 1	미국	2032	15.6	-	-	FEED	2028
Leviathan (FLNG)	이스라엘	2033	4.5	-	-	FEED	2027
Cameron LNG Train 4	미국	2033	6.8	6.8	100	FEED	2027
Nigeria Ace Gas (FLNG)	나이지리아	2034	3.0	-	-	FEED	2026
Altamira Onshore - Fast LNG 2	멕시코	2027	1.4	1.4	100	U/C	2026
Amigo FLNG 1, 2	멕시코	2028	4.2	2.7	63	U/C	2026
Port Delfin 1 (FLNG)	미국	2029	4.4	3.3	75	U/C	2026
Commonwealth LNG	미국	2029	9.5	7.0	74	U/C	2026
Qatar North Field Train 7-8	카타르	2029	16.0	16.0	100	U/C	2027
Alaska LNG	미국	2036	20.0	13.0	65	Pro	2026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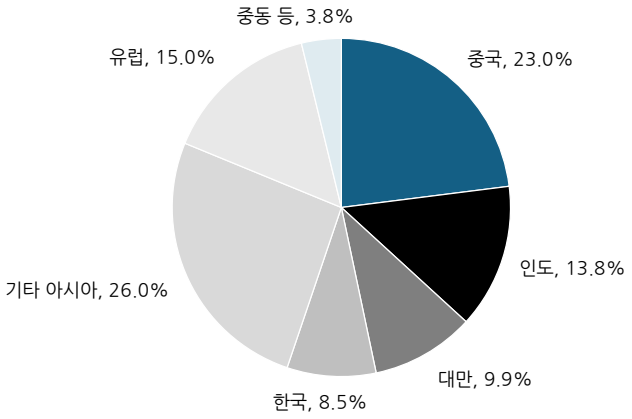
주1: 이란 프로젝트 제외 / 주2: 하늘색 음영 처리는 2026년 FID가 기대되는 프로젝트 / 주3: 계약 용량은 LOI를 제외한 SPA 물량 기준

그림5 연간 FID 물량 추이 및 전망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6 카타르산 LNG 지역별 수출 비중(2025년) - 아시아 80%, 유럽 15%



자료: QatarEnergy,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미국 물량으로 전환 시 톤마일은 2배 가까이 증가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